

아랍의 봄 이후에 이슬람권의 정치적 변화와 그것이 기독교 선교에 미치는 영향 Christian Missions after Arab Spring

저자
(Authors) 서동찬
Dong Chan Seo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10(1), 2017.03, 173-213(41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9481>

APA Style 서동찬 (2017). 아랍의 봄 이후에 이슬람권의 정치적 변화와 그것이 기독교 선교에 미치는 영향. *Muslim-Christian Encounter*, 10(1), 173-213

이용정보
(Accessed)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9 10:44:05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아랍의 봄’ 이후에 이슬람권의 정치적 변화와 그것이 기독교 선교에 미치는 영향

서동찬*

- I. 서론
- II. ‘아랍의 봄’ 해석 프레임
- III. ‘아랍의 봄’ 이후의 정치적 변화
- IV. ‘아랍의 봄’ 이후의 기독교 선교
- V. 결론

*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

www.kci.go.kr

I. 서론

‘아랍의 봄(Arab Spring)’은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를 기점으로 하여 이집트, 리비아, 바레인, 예멘 그리고 시리아 등 아랍 지역 전역으로 확산된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혹은 정치 권력 변동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격변을 아랍의 ‘봄(Spring)’이라는 메타포로 부르는 것은 권위주의 독재의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의 ‘봄’이 도래할 것이라는 가능성의 표현일 수 있다. 그렇지만 중동의 민주화 실험은 권위주의 정권의 회귀와 IS 테러와 난민 사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공격 등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아랍의 겨울(Arab Winter)’로 복귀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¹

튀니지와 이집트 등은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후 민주적 혼돈 상황이 이어지다가 도로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하게 되었다면, 시리아와 리비아와 같은 나라는 권위주의 정치권력의 중앙집중적 힘의 부재가 종파별, 지역별 국가분열과 내전으로 전개되어 갔다. 바레인과 요르단, 그리고 모로코 등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민주화 요구를 위에서부터 적절히 중화하고 흡수하여 큰 정치변동 없이 아랍의 봄을 통과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중동 국가들마다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무엇일까?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민주적으로 이행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이 있어왔다. 전통적으로는 근대화 이론으로 설명이 되었다. 사회경제적 발전은 사회의식을 변화시키고 민주적 국가로의 이행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미소 냉전기에는 특

1 Vijay Prashad, *Arab Spring, Libyan Winter* (AK Press : Oakland, 2012), 89.

히 제3세계 국가들의 산업화가 중요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의 근대화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소련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 국면에서 이들 세 나라의 근대화가 소련의 세계적 팽창을 막는 근본적 대책으로 인식했고 마셜 플랜과 같은 사회경제 근대화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발전론은 미국의 제3세계 외교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채택이 되었다.² 그러나 서구 주도의 근대화 체계는 남미 국가들의 발전을 추동하지 않고 반대로 종속의 심화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대두된다. 근대화 발전론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이론적 모델들이 제기가 되었다. 먼저 종속이론은 발전론이 세계자본주의 체제 환경 속에 위치한 개별 국가의 종속변수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즉 제3세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다국적 기업이나 세계주도적 국가들의 영향력은 민주적 이행이 아니라 종속의 발전을 심화시키고, 결국은 중심부 국가들의 하청으로 만든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중남미에서의 1960, 70년대 군사 쿠데타를 설명하는 모델로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이 유용한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 이론은 아르헨티나의 기예르모 오도넬(Guillermo O'Donnell)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 수입대체 산업화 기간에 민중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관료집단과 군부세력이 결탁하여 지배블력을 형성하고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³ 이집트와 튀니지, 리비아와 같이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국가들로서는 과도한 민중 부분의 활성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군부와 관료 집단의 지배력이 강할

2 김웅진, 박찬욱, 신윤환 편역, 『비교정치론 강의 2: 제3세계의 정치변동과 정치경제』, (한울아카데미:서울, 1997), 46.

3 Guillermo O'Donnell, A.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Studies in South American Poli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73), 88.

수 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로의 이행은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불과하고 지체되거나 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슬람과 같은 문화적 변수를 포함시킨 수정된 발전론이 중동 국가의 정치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모델로 재등장 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불과하고 문화가 유교적인지, 이슬람적인지 아니면 개신교적인지에 따라 정치 형태의 발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문화적 변화는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이기 때문에 중요한 설명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그렇게 보면 이슬람 세계인 중동에서의 민주화는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이론으로 2011년 이후의 아랍의 봄 현상을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으며, 전개의 방향성을 진단하기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도 서방국가들이 중동의 민주적 이행에 지배적 변수로 작용했다거나 중동 국가 내부의 세력 갈등의 결과로 보는 시각은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에서 드러나듯이 서방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중동 국가들이 권위주의나 장기 독재를 유지해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종속 이론에서처럼 외부적 요인을 극복하지 않으면 개별 국가의 민주적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2011년 아랍의 봄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아랍의 봄’ 이후에 이슬람권의 정치적 변화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전지구적 팽창과 이에 저항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 현상으로 접근할 것이다. 프레카리아트는 형용사 precarious(불안정한)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의 합성

4 Ronald Inglehart, Christian Welzel,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 York, 2005), 19.

어로서 1980년대에 프랑스 사회학자들이 임시직 혹은 계절 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지만, 영국의 경제학자 구이 스탠딩(Guy Standing) 교수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 등장한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개념화 하면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랍의 봄’ 이후의 정치적 변화를 규명하고, 나아가 그것이 미친 중동지역 선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결과물들과 언론 분석들을 사용했고, 기독교 선교와 관련하여서는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등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중동 현지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동의 기독교 공동체 현장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취했다면 보다 많은 현장조사의 샘플들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의 성격으로, 그리고 중동 현장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랍의 봄’ 과 기독교 선교의 영향에 대한 해석의 프레임을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위에 언급한 각 국가별로 각각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II. ‘아랍의 봄’ 해석 프레임

1. ‘아랍의 봄’ 메타포의 문제

지구촌 공동체에서 ‘서울의 봄’, ‘아랍의 봄’ 과 같은 은유들이 어떻게 하여 사용된 것인지 우선 계보학적 뿌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봄으로 정치 변동을 비유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

www.kci.go.kr

으며, 또 이러한 봄의 은유가 적합한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격변을 ‘봄’의 언어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의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라고 보고 있다. 체코의 민주화 운동은 소련 공산당의 진압으로 실패했고, 1990년의 소련 해체 시기까지 프라하의 겨울은 지속되었다. 한편 아랍의 봄은 2011년 1월 6일자 *Foreign Policy*에 실린 마르스 린치(Marc Lynch)의 〈Obama’s ‘Arab Spring’?〉이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기사에서 마르스 린치(Marc Lynch)는 이러한 항의들이 계속해서 국가들 내부와 다른 아랍국가들로 확산 된다면, 그때 이것은 오바마의 ‘아랍의 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⁵ 오바마의 ‘아랍의 봄’이란 것은 미국 행정부의 영향에 의해서 중동의 민주화가 촉발되었다는 사고를 배경으로 한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2009년에 이집트의 카이로 대학에서 행한 이 연설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을 갈망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말하고 어떻게 자신이 통치되는가에 대한 한 말을 가질 능력〉, 〈법의 통치와 정의의 평등한 행정에 대한 확신〉, 〈투명하고 국민들로부터 도둑질하지 않는 정부〉,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사는 자유〉 등에 대해서 강조했다.⁶ 마르스 린치(Marc Lynch)의 주장은 ‘아랍의 봄’ 현상이 2009년 오바마의 연설에 의해 촉발된 성격이 있다는 것이며,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후 중동의 정치 변화를 ‘아랍의 봄’이라고 불렀던 관례를 답습하는 것이다. 즉, 2003년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즈음하여, 사담 후세

5 Marc Lynch, “Obama’s Arab Spring?” *Foreign Policy*. Last modified January 6, 2011 <http://foreignpolicy.com/2011/01/06/obamas-arab-spring/> 2011. (Accessed on 2017, 13th Jan).

6 Jeff Zeleny, Alan Cowell, Addressing Muslims, Obama Pushes Mideast Peace. *The New York Times*. Last modified July 10, 2009, http://www.nytimes.com/2009/06/04/us/politics/04obama_text.html (Accessed on 2017, 13th Jan).

인이라는 악당을 제거하는 정권교체(Regime Change)만이 지역의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권위주의 체제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출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부시 행정부의 해프닝이었다. 2001년 9/11 테러를 빌미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탈레반을 몰아낸 후 곧바로 전투 병력을 이라크로 집결시켰다. 탈레반과의 전쟁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전후 질서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고 미국은 보복의 전선을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된 이라크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라크 침략을 합리화 하는 명분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를 씌우고 결국 침략을 감행했다. 그러나 바그다드에 대량살상무기나 핵은 발견 되지 않았고 부시는 변명이 궁색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민주주의의 확산과 정권 교체 명분이다. 그 후 조지아(Georgia)의 장미혁명,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키르기스스탄의 튜립 혁명과 같은 ‘꽃들’의 정치변동이 일어났다. 2005년에는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도 자유 대통령 선거를 약속하고, 쿠웨이트는 여성 참정권을 허용하는 등의 일련의 민주주의 성과들이 나타나는 듯 했고, 서방 세계는 이것을 또한 ‘아랍의 봄’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마르스 린치(Marc Lynch)는 ‘아랍의 봄’이라는 서구 중심적 메타포의 사용 용례를 답습하면서, 2009년 오바마의 카이로 대학 연설을 원인으로 특칭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의 봄’이라는 메타포는 서구중심주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발전 국가의 외생적 영향력을 전경화(foreground)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즉, 중동의 정치 상황이 독재와 권위주의로서 서구의 정치 발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중동의 사회질서는 발전하는 서구의

모델을 따라가야 하고, 서구의 영향 없는 민주적 이행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동문제 전문가인 제임스 겔빈 또한 ‘아랍의 봄’이라는 메타포는 2005년의 일련의 중동지역에서의 민주화 현상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부시 대통령의 ‘자유 아젠다’의 열매로 해석하면서 등장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광장의 아랍인들과 아랍 평론가들 사이에는 ‘*rabi al-thawrat al-arabiyya*’ (아랍 혁명들의 봄, 아랍어) 비유에 대한 불평이 적지 않았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표현 자체가 격변에 참여한 비아랍계 공동체들(예를 들면 베르베르 공동체)을 배제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2010 이후만의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투쟁해온 역사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⁷

실제로 1980년대에는 모로코로부터 요르단까지 중동 전역에 IMF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운동이 있었고, 그 후로도 수많은 파업과 시위들이 일어났다.

따라서 ‘아랍의 봄’이라는 메타포 자체가 중동이라는 지역적 범주로 현상을 국한시키고, 전지구적인 규모의 저항체제 운동(anti-systemic movement)으로서의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프레임일 수 있다. 1990년 소련의 붕괴 이후 민족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자본과 상품 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었고, 민족 단위의 국가 정책과 경제는 외생적 변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계화의 시대는 일국의 정치변동이나 지역적 단위의 변화 또한 글로벌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랍의 봄’은 월스트리트의 시위, 나아가 광화문 광장

7 James Gelvin, Conclusion: The Arab World at the Intersection of the National and Transnational”. In Mark L., Maryam Jamshidi, *The Future of the Arab Spring: Civic Entrepreneurship in Politics, Art, and Technology Startups*, Butterworth-Heinemann: London, 2014), 241.

의 촛불과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 세계화 현상의 부작용은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가장 극명하게 폭발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자본이 움직이면 자생력이 약한 국가나 지역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중동의 국가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같이 석유 수입이라는 원천 자원을 보유한 나라들은 ‘아랍의 봄’을 지나칠 수 있었다. 반면, 시리아나 리비아 그리고 이라크와 같이 내부결속력이 약하고 중앙정부의 정통성이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 내분과 내전을 겪는 등 ‘아랍의 봄’은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는 ‘아랍의 겨울’이다. 봄이나 겨울이나 모두 중동 지역의 국지적이고 개별적인 반권위주의 체제 운동으로 2011년 현상을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이다. 따라서 ‘아랍의 봄’ 프레임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많은 장애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2. 광장의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운동

2010년 12월 튀니지의 한 청년 부아지지가 분신 자살하고 중동의 청년들이 광장으로 쏟아진 것이 단순히 민주화의 요구가 아니었다. 2001년 9/11 테러 후에 미국은 막대한 통화팽창 정책을 실행하여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를 바닥으로 낮추고 달러가 시중에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글로벌 소비력이 팽창하면서 중국 경제가 활성화됨과 더불어 석유 수요가 증가한다. 중동 산유국에 일하러 갔던 튀니지, 이집트 등 중동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경기 상승을 타고 벌

www.kci.go.kr

어들이 돈을 본국에 송금하고, 유럽의 관광객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미국발 경기 부양책은 세계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튀니지와 이집트는 세계적인 밀 수입국인데 밀가루 가격의 상승은 민초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튀니지와 이집트와 같은 나라는 한때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도입되어 주거, 교육, 생필품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이 많았다. 그러나 친미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국가 보조금은 점차 사라져버렸다. 국영 기업들이 민영화 되면서 일부 권력자들은 거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대다수의 대중은 직업과 생존에 있어서 무한 경쟁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슬람 세계의 전통적 가치와 공동체 중심의 생존체계는 신자유주의의 폭격을 맞고 산산조각 났으며 이를 앞다퉈 도입한 세력들이 바로 친미 권위주의 체제였다. 중동에 민주주의의 나무를 심겠다는 서구의 화법이 중동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갔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급격히 소비력을 축소시켰고, 중국 경제의 규모 축소와 이로 인한 중동의 산유국의 생산 규모 축소와 실업확산을 야기했다. 튀니지의 청년들은 중동 산유국에서 일 자리를 잃고 귀국해야만 했으며, 유럽의 여행객들의 감소는 튀니지를 더욱 불황으로 몰았고, 높아진 생필품의 가격은 이중고가 되었다. 인구의 대다수가 청년들로 구성된 중동의 일반대중이 직면한 고통은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생존투쟁은 권위주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억압되고 유린되기 일쑤였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는 일자리를 걱정하며 생존의 절박한 몸부림 속에 살아야 하는데 ‘금수저’는 자본 소득이 더욱 늘어나는 부의 양극화가 중동에는 더욱 치명적으로 현실화 되었다. 오랜 독재 권

www.kci.go.kr

력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정치를 고집했다.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들이 주권을 위탁한 것이고, 그 위탁의 목적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의 존엄을 갖고 살도록 봉사하는 것이다. 이슬람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라는 논쟁이 일각에 있지만 이것은 전혀 무의미한 말장난이다. 중동의 일반 대중에게도 국가는 존재하며 그 국가는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있다. 서구 세계의 사람들만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의식이 발달한 것이 아니다. 국가는 인간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서 부와 권력의 효율적 행사와 공정한 배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관료들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획득하거나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자를 위해 충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튀니지의 청년 부아지지가 노점상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생존하고자 했지만 공권력인 경찰은 뇌물을 요구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며 분신했고 이러한 짓밟힌 생의 의지는 거대한 분노와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즉 중동의 이러한 존엄 투쟁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유럽의 거리에도 거의 동시에 표출되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그문트 바우만은 타히르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월 스트리트의 텐트, 런던 시나 그리스와 스페인의 의회들보다 정부에 대하여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고 평가한다.⁸

한편 영국 배스(Bath)대학의 ‘경제적 안정’ 분야 교수이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경제적 안정 프로그램’ 국장을 지낸 게이 스탠딩(Guy Standing) 교수는 프레카리아트(*precarariat*)라는 개

8 Zygmunt Bauman, Leonidas Donskis, *Moral blindness: the loss of sensitivity in liquid modernity* (Polity Press: Malden, 2013), 68.

념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환경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반체제 운동을 설명한다. 프레카리아트(Precariat · ‘불안정한’이란 뜻의 이탈리아어 Precari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는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지속적인 고용 전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별다른 경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2008년 세계를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부상하는 사회계층이라 할 수 있다. IMF의 지도를 받으면서 노동 유연성이 강요되면서, 근로자들은 일용직과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그리고 파견, 용역 등 간접 노동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국가의 복지 혜택 또한 제한적으로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인간의 기본적 존엄마저도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⁹ 일본의 경우도 잃어버린 20년 경기침체를 맞아 자유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가이스탠딩(Guy Standing) 교수는 프레카리아트라고 규정한다.¹⁰ 그의 분석에 따르면¹¹, 프레카리아트는 자유와 기본적인 안전을 원한다. 그들은 과거 노동운동이 요구하던 형태의 안전과 국가적 온정주의(paternalism)을 거부하고 인생에 대한 통제, 사회적 연대의 부활, 지속가능한 자율 등을 원한다 또한 미래 설계 또한 환경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한 삶의 영위를 추구한다. 불안정한 삶의 환경에 몰리면서 전통적인 좌파 운동이나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유목민적인 자율과 연대, 그리고 삶의 질과 존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

9 Guy Standing,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Academic:London, 2011),12.

10 Guy Standing, *Work after globalization: Building occupational citizenship* (Edward Elgar: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USA,2009),111.

11 Guy Standing,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Academic:London, 2011),155.

계층으로서 프레카리아트는 전지구적인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중동의 광장 운동 또한 유린되고 소외된 세계 질서에 대한 반체제 대안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중동의 광장에 나온 집회 참여자들은 ‘아랍의 봄’이라는 표현을 생소하고 달갑지 않고 거북하게 받아들인다. 반면에 광장의 수많은 중동인들은 ‘*karama*’, ‘*thawra*’, 그리고 ‘*haqooq*’를 외쳤다. 아랍어에서 ‘카르마’는 존엄(dignity)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은 치욕 혹은 굴욕(Humiliation), 도구화(Instrumentalization), 격하(Degradation), 비인간화(Dehumanization)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시, 차별, 고문, 강간, 사회적 배제, 노동착취, 강제노역, 노예 등과 같은 형태의 인권 유린을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인정하는 사회를 요구하는 구호가 바로 ‘카르마’이다. 그리고 타우라(*thawra*)는 아랍어에서 혁명을, 하쿠크(*haqooq*)는 인권을 의미한다. 국민을 위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굴욕의 구렁텅이로 몰고,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격하시키고, 인간 이하의 삶으로 몰아가간다면 당연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존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권위주의 질서에 대해서는 근본적 변화가 되기까지 지속적 혁명으로 연대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 중동의 광장을 뜨겁게 뒤덮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랍의 봄이라는 서구중심적인 용어보다 우리는 중동의 격변을 인권(*haqooq*)의 존엄(*karama*), 혁명(*thawra*)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Ⅲ. ‘아랍의 봄’ 이후의 정치적 변화

1. ‘아랍의 봄’ 이후 정치 변화의 개요

2010년 말부터 전개된 중동의 변혁 사건과 관련하여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 제출된 박사학위 논문에서 아미르 바게르포는 중동국가들을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분류했다.¹² A: 정권 교체에 성공한 국가들: 이집트, 리비아, B: 정권교체에 실패한 국가들: 시리아, 바레인, C: 대중적 저항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어떤 형태로든 정권 교체가 일어났던 국가의 범주(A)에는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이 있으며, 정권 교체에 실패한 국가들(B)로는 시리아, 이라크,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중적 저항이 미미했거나 가시화 되지 않았던 국가들(C)로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격변을 겪은 A와 B 유형의 국가들도 그 후에 통제 가능한 질서를 회복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전자에는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걸프만 산유국들 등이, 후자에는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동의 모든 국가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리비아, 예멘, 시리아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큰 줄기의 변화를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12 Amir Bagherpour, "Religion and the evolution of democracy." A revised Selectorate Model for the Arab Spring. (Ph.d. *diss.*,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12), 6.

1) 튀니지

년도	주요사건
2011	<p>부아지지의 분신사건에 의해 촉발된 시위 벤 알리 대통령 탈출(23년 통치 종결) 대통령 대리 국무총리인 Ghannouchi도 과거와의 단절 요구를 받아 사임 제헌의회 선거 실시, 이슬람주의 나흐다(Ennahda)당이 의회에서 다수의석 차지 Moncef Marzouki 대통령 당선</p>
2012	<p>Ennahda, 신헌법에서 샤리아 포기, 세속 국가 선언 샤리아 통치를 원하는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의 저항 수백명의 이슬람과격분자들, 술 판매상 공격하고 경찰소 습격 정부,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이 발생한 8개 지역에 야간 통금 실시 수도 튀니스에서 수 천명의 시위자들, 이슬람정부가 주도한 여 성인권 축소에 항의하여 데모</p>
2013	<p>수도 외곽에서 이슬람과격세력과 경찰의 충돌로 1명이 사망 경찰, 카이로안 시에서 시위대와 충돌 반대당 당수 MP Mohamed Brahmi 암살, 총궐기와 정부 하야 요구 여당인 Ennahda과 주요 세속주의 야당들, 임시정부 수반으로 Mehdi Jomaa 추대</p>
2014	<p>의회.신헌법 통과 정부는 대 테러작전에서 야당 인물 Chokri Belaid 암살 혐의자 사살 발표 대통령 Moncef Marzouki, 벤 알리 이후 2011년에 공표된 국가비 상사태 종료 선언 의회 선거에서 세속주의자, 무역협회, 자유주의자, 벤 알리 시기 인물들로 구성된 Nidaa Tounes당이 다수 의석 차지 Nidaa Tounes당 후보 Beji Caid Essebsi 대통령 당선</p>

2015	<p>지하디스트들이 해변에서 38명 총격 IS 그룹, 튀니스 바르도 박물관에서 21명 외국인들 총격 살해 IS 세력, Sousse의 한 해변 리조트 공격, 관광객 38명 사망 정부, 과격주의 모스크 폐쇄 선언 대통령 Beji Caid Essebsi 비상사태 선언, 테러리스트 학살이 국가를 붕괴고자 함. 대통령 경비대 버스 폭발로 12명: 사망.IS 소행. 자스민 혁명 주도 국민대화4중체(National Dialogue Quartet) 노벨상 수상</p>
2016	<p>정부, 일자리 부족 원인 시위를 막기 위해 국가적 통금 선언 (밤8-새벽5시) 프랑스, 10억 유로 지원, 튀니지 경제와 사회변화 지원.</p>

2) 이집트

년도	주요사건
2011	<p>튀니지 사태, 벤 알리 대통령 탈출에 자극된 반정부 시위 대통령 무바라크 하야, 군사위원회에 권력 이양 카이로 타히르 광장 시위 계속, 이슬람주의자 그룹이 전면부상. 카이로 타히르 광장 폭력 사태를 빌미로 군부세력이 권력 장악 새 국무총리 Kamal al-Ganzouri 주도 민족통일정부 선언</p>
2012	<p>이슬람주의 정당들, 의회선거에서 승리 군부는 1981년 이후 시행된 비상계엄 종결 선언 무슬림형제단 후보 Mohammed Morsi,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새 국무총리 Hisham Qandil, 세속주의, 자유주의 진영 인사 배제한 국무회의 구성 이슬람주의 전사들, 시나이에서 16명 군인 사살, 이스라엘 공격 시도</p>

	<p>대통령 Morsi, 신헌법 초안 작업</p> <p>대통령 Morsi, 반대자들의 사법권을 박탈하는 법규 선언, 대중 시위에 직면</p> <p>이슬람주의 다수 의회, 이슬람의 역할을 강조하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제한하는 헌법 통과</p> <p>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세속주의 당, 기독교, 여성 그룹들의 반대 시위 격화</p> <p>국정마비, 통화 절하, \$4.8bn (£3bn) IMF loan 지연</p>
2013	<p>대통령 Morsi, 이집트 27 지방도시장 중에 13개에 이슬람주의자 진영 인사 임명.</p> <p>그 중에는 1997년 루소르 관광객 테러 주도 이슬람주의자도 포함. 시위대, 룩소르 시장 몰아냄</p> <p>군부 개입, 대통령 Morsi, 퇴위, 대통령 하야 시위 중단</p>
2014	<p>보안대의 친 모르시 진영 시위 해산 과정에서 수 백명 사망</p> <p>그 과정에서 약 40명의 콕틱 기독교교회가 파괴 당함.</p> <p>미국, \$1.3bn (£810m) 상당 원조 중지 선언</p> <p>정부, 무슬림형제단을 Mansoura 폭발사건 연루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선언</p> <p>신헌법, 종교 기반 정당 활동 금지.</p> <p>전직 군장교 Abdul Fattah al-Sisi대통령 선거 당선</p> <p>시나이 거점 무장단체 Ansar Beit al-Maqdis, IS와의 공조 선언.</p>
2015	<p>이집트 공군, 동부 리비아 공습. 21명의 콕틱 기독교 살해 이유</p> <p>IS, 북부 시나이에 테러 공격 감행</p> <p>IS, 시나이 러시아 항공기 격추 주장. 승객 224명 사망</p>
2016	<p>IS, Giza 관광지 테러</p> <p>이집트 에어항공기 지중해 추락</p> <p>IMF, 3년 \$12bn loan, 심각한 경제위기 탈출 목적으로 지원</p>

3) 요르단

년도	주요사건
2011	튀니지 거리 시위에 자극된 데모 Abdullah 국왕, 대규모 시위로 새 수상을 전직 장교 Marouf Bakhit를 임명, 정치개혁 시위 계속,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Awn al-Khasawneh으로 수 상교체 요구
2012	Abdullah 국왕, 수상 Awn al-Khasawneh, 돌연 사임. 전임 수상 Fayez al-Tarawneh 재임명 Abdullah 국왕, 조기 의회선거 요구, 무슬림형제단과 이슬람행 동전선은 선거 보이콧. Abdullah 국왕, Abdullah Ensour를 수상으로 임명 연료보조금 증가에 대항하는 대중시위, 수도 암암에 개최, 국왕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 충돌, 군주제 폐지 주장 제기됨.
2013	의회 선거에서 친정부 후보들 승리, 야당 이슬람행동전선은 선 거를 보이콧 Abdullah Ensour 수상 중심의 새로운 정부 영국, 테러 혐의자 무슬림 성직자 Abu Qatada를 요르단으로 추방
2014	시리아 IS대한 공습에 미국과 함께 참전 무슬림형제단의 대표수장 체포.
2015	IS, 불잡힌 요르단 전투기 조종사 Muath Kasasbeh 불태우는 장 면 비디오 공개. 반IS 작전 강화 및 포로 처형으로 맞섬 EU, 100 million euros (\$113 million), 시리아와 이라크 위기 대 처 위해 긴급 제공
2016	사우디 주도, 예멘 Houthi 반란세력에 대한 공습 참여 시리아 난민 수용 포화 상태 선언 IS, 십자군 성채가 있는 카라크에서 10(한 명의 관광객 포함)살해

4) 리비아

년도	주요사건
2011	<p>벵가지에서 가다피 반대 소요 발생</p> <p>나토는 비행금지구역 설정하고 카다피 관저 공습</p> <p>저항군이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p> <p>카다피 사살됨</p> <p>국가과도위원회(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리비아 해방과 8개월 내 선거 선언</p>
2012	<p>첫 민주적 선거 실시, 독립주의자들이 새 총국민의회 다수석 차지</p> <p>이슬람주의 전투세력, 벵가지 공격하여 미국 대사 살해</p> <p>과도정부는 새로 선출된 총민족국회(General National Congress)에 권력 이양</p> <p>국회는 자유주의 민족전선당 Mohammed Magarief를 의장으로 선출</p> <p>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이 벵가지에서 미국 대사와 미국인들 사살</p> <p>Muhammad al-Magarief, 국회의장 사임</p>
2013	<p>MP Nuri Abu Sahmein, 가타피 시절 차별당한 베르베르족, 새 의장으로 선출</p> <p>저항세력들, 동부 석유 터미널 장악</p>
2014 ~ 2017	<p>선거에 의해 수립된 Council of Deputies, General National Congress(GNC)의 갈등.</p> <p>Council of Deputies는 리비아 동부지역에서 우세,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의 지원</p> <p>GNC는 서부 트리폴리를 거점, 카타르, 수단, 터키의 지원 받음 => 여러 분파들 갈등, 국토 분할, 내전상태, 벵가지 혁명 의회, IS 리비아 지부</p>

5) 예멘

년도	주요사건
2011	튀니지 거리 시위에 자극된 데모 시작. Saleh 대통령 2013년 대선 불참, 아들 후계 승계 중단 선언 미군에 의해서 알카에다 리더 Anwar al-Awlaki 사살
2012	새로운 대통령 Abdrabbuh Mansour Hadi 단독 후보로 당선 11명을 죽인 사나 폭탄 테러에서 내무장관 Muhammad Nasir Ahmad 생존함 사우디 외교관과 그 일행 사나에서 총격으로 사망.
2013	Al-Qaeda 혐의자, 정부군, 경찰 등 133-150명 사망
2014	대통령 Hadi, 6개 지역 연방제 승인 홍해 수출 터미널로 연결된 송유관 폭발 사건 대통령 Hadi 내각 해체, Houthi 반군이 연루된 반정부 시위 후 연료가격 상승안 철회 Houthi 반군, 수도 사나 대부분 장악
2015	Houthis 반군, 정부에 의해 제안된 헌법안 거부 남부 요새 아덴으로 도망간 대통령 Hadi을 교체하는 대통령 위 원회 임명 IS, 예멘 공격 감행, 사나의 시아 모스크 대상 폭탄테러 137명 사망 Houthi 반군, 남부로 진군 사우디 주도 걸프국가 연합군, Houthi 반군 폭격 및 해상 봉쇄 알카에다 리더 Nasser al-Wuhayshi 미군의 드론 공격의 사살 사우디 지원 정부군, Houthi 반군으로부터 항구도시 탈환, 대통 령 Hadi 아덴 복귀
2016	UN, 예멘 정부후터 반군, 전직 대통령 살레 세력 간의 대 타협 중재 IS테러 아덴 40명 군인 살해 사우디 주도 연합군, 사나의 장례행렬 폭격 140명 사망, 500명 부상

6) 시리아

년도	주요사건
2011	<p>남부 도시 Deraa에서 정치적 죄수들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보안대가 발포하여 사살. 폭력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p> <p>대통령 아사드, 화해책으로 수십명의 정치범 석방, 정부해산, 48년의 국가계엄상태 폐지 선언</p> <p>탱크를 동반한 군대의 진압작전, Deraa, Banyas, Homs, 다마스쿠스 외곽지역에 감행.</p> <p>데모 군중 진압.</p> <p>미국과 EU, 제재 강화</p> <p>IAEA 핵감시기구, 비밀핵프로그램에 대한 UN 안전보장회의에 시리아 제소.</p> <p>대통령 아사드, 북부 지역 Hama, 대규모 시위 후, 도지사 해임, 군대 투입</p> <p>아랍연맹, 시리아 제재 선언</p>
2012	<p>정부군, Homs과 다른 도시들에 대한 폭격 강화</p> <p>UN 안전보장회의, 평화계획 승인, 중국과 러시아는 초기안 수정 후 평화계획 지원 동의</p> <p>시리아, 터키 항공기 격추.</p> <p>터키는 시리아 군 국경 접근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선언</p> <p>자유 시리아 군, 다마스쿠스의 3개 안보국 폭파, 북부 도시 알레포 장악</p> <p>미 대통령 오바마, 화학무기 사용하면 미국 개입 경고</p> <p>카타르에서 시리아 혁명 및 저항군 민족연합 구성, 이슬람주의 전사들 배제.</p> <p>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걸프 국가들, 민족연합을 시리아 국민의 유일 합법 대표로 인정</p>
2013	<p>UN, 무기감시국,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에서 화학무기 사용 300명 살해 파악.</p> <p>이슬람주의 반군이 서방지원 자유 시리아 군대의 거점들을 장악하자 미국과 영국은 북부 시리아 반군 지원 중단</p>

2014	시리아군과 헤즈볼라, 레바논 국경지역 반군 요새인 Yabroud 탈환 IS, 알레포에서 동부 이라크까지 칼리프국가 선언 미국, 5개 아랍국가들, 알레포와 라카 지역 IS를 폭격
2015	쿠르드무장세력 터키 국경 지역인 Kobane에서 IS 축출 IS 중부 시리아인 고대도시 Palmyra 장악, 고대 유적 파괴. 이슬람주의 반군연합, Jaish al-Fatah이 Idlib 지역을 장악, 라타키아 정부 해안 요구 압박 러시아 IS 공격 선언하며 시리아 공습 시작, 그러나 실제로는 반아사드 반군을 공격 시리아 군대 Homs에서 반군 철수를 허용하고 재장악
2016	시리아정부군, 러시아 공습 지원을 받아 IS로부터 Palmyra 탈환 터키군, 시리아 진입, IS와 쿠르드 반군을 터키 국경지대에서 밀어냄 러시아 공군과 이란 지상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은 알레포를 탈환 러시아, 이란, 터키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휴전협상에 동의 (2017년 1월)

2. ‘아랍의 봄’ 이후 정치적 변화에 대한 분석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변하지 않는 문제는 독재체제, 억압, 부패, 그리고 경제적 정체 등이었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다양한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언론을 통제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차단했으며, 인권 유린과 탄압을 자행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변화에 대한 희망을 없게 만들었다. 왕정이든, 군사 정부든, 사회주의 정부든 상관 없이 독재권력은 정치권력을 쥐어 잡고 소수의 지배 엘리트, 정권의 부역자들, 그리고 기술관료만이 즐거운 세상을 구축했다. 이러한 폐쇄적인 정치 체제는 경제의 정체

www.kci.go.kr

성을 타개하지 못하고 경제가 다변화되지 못하도록 지나치게 석유에 종속적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중동의 산유국은 GDP가 절대적으로 석유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 국면은 심각한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석유를 생산하지 않는 중동의 국가들의 경우도 걸프만의 산유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본국에 보내는 청년들의 송금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에 취약하지 않을 수 없다. 80년대와 90년대에 국제 유가는 심각한 하락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련의 붕괴를 초래했고, 아랍 국가들 또한 경제 위기의 수렁으로 몰아 넣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 아랍 국가들은 IMF에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었고, 그와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집트, 튀니지 등은 건국 이후 60년대까지 사회주의적 경향의 경제 구조를 보유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강요되면서 민영화의 명목으로 국가 소유의 기업들이 부패한 소수 기득권 세력(특히 군부)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식량과 에너지 보조금 또한 삭감되고, 노동의 유연성 강화로 해고가 쉽게 되고, 결국 일반 대중과 상층부 간의 빈부 격차는 심화 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청년 인구의 급상승과 높은 실업률은 아래로부터의 생존과 존엄 투쟁이 폭발할 수 밖에 없는 화약고와 같았다. 비정규직, 고학력 실업, 지체된 결혼 등은 청년 세대의 사회적 좌절과 불만으로 작용했고, 이는 나아가 서구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귀결되었다. 왜냐하면 서구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해 중동의 독재 권력과 결탁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질서를 존속시키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허약한 국가 체질로서는 중동 국가들이 2008

www.kci.go.kr

년 미국에서 촉발된 거대한 세계 금융 위기를 버텨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동안 독재권력이 사용해온 다양한 통치 기술들이 더 이상 먹혀 들지 않은 것이다. 중동 전역에서 펼쳐진 광장의 존엄 투쟁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지배권력에게 남아 있지 않았다. 미국 자체가 금융 위기의 진앙지였기 때문에 갈수록 보호 무역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고, 유럽연합도 해체의 위기를 버티고 있는 수준이며, 중국의 경제는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을 찾아 상품과 자본을 중동과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로는 서방 세계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중동의 국가들 가운데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들은 돈의 힘으로 대중의 분노를 체제 안으로 흡수할 수 있었고, 요르단과 모로코의 경우는 군주제로서 내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들을 여러 번 교체하는 선에서 국민의 정치적 변혁 요구를 흡수할 수 있었다.

반면 이집트와 튀니지의 경우 세속주의 권위주의 체제를 종식했지만 새롭게 등장한 이슬람주의 정치세력들이 대안적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광장의 민심은 또 다시 세속주의 세력을 선택한 사례이다. 이집트의 경우 무슬림형제단이 추대한 무르시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지만 국민생활의 악화와 치안 불안, 그리고 정치적 불안과 외국인 관광객 둔화, 해외직접투자(FDI) 감소, 국외로의 자본도피, 외화부족으로 인한 이집트 파운드화 급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섰고, 이에 맞서 무르시 정권은 2012년 11월 22일 <헌법선언>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은 사법권을 초월한다고 천명하면서 이집트 국민의 강한 저항을 받고 결국 2013년 6월 30일, 시시 중심의 군부에 정치 권력을 내어줄 수 밖에 없었다. 무슬림형제단이 1928

년부터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산층 중심의 이슬람네트워크를 구축해왔지만, 국가를 경영할 정도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없었고, 튀니지의 이슬람 야당의 경우도 오랫동안의 탄압 때문에 국외 추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정치 변동에 유연하게 맞서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리비아와 시리아는 각각 부족주의와 종파주의(Sectarianism)의 특수성 때문에 아랍의 봄이 아니라 더 혹독한 겨울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석유 수출의 중심인 동부 지역을 분리시키고 나머지 지역의 부족들을 통합하여 권위주의 권력체제를 구축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힘의 공백 상태 초래되고, 여러 부족수준의 정치세력들이 국토를 분할 점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리아의 경우도 시아파 아사드 정파가 국가 통제력을 상실하자 국토가 각각 정부군, 수니파 무슬림 반군, 쿠르드, IS 등으로 분할 되어 버린 결과가 되었고, 주변 강대국들(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이 종파주의 전쟁에 개입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난민과 실항민이 생기는 비극이 계속 되고 있다. 리비아와 시리아의 경우도 복구 불가능한 파괴와 희생을 치르면서 결국 국가질서를 회복하겠지만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예멘,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은 종파갈등과 외부 국가들의 개입으로 오랫동안 겨울을 지낼 수 밖에 없으며, IS와 같은 이슬람국제운동의 근거지가 될 것이다.

3. ‘아랍의 봄’ 이후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운동

그렇다면 ‘아랍의 봄’은 긍정적인 변화는 전혀 없이 현상 유

www.kci.go.kr

지나 부정적 악화만을 초래한 사건일까? 한국의 1980년 ‘서울의 봄’이 신군부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1987년 체제 격변을 알리는 지진 조짐 같은 사건이었던 것처럼 ‘아랍의 봄’ 또한 그럴 수 있을까?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영어권 세계의 비평가들과 학자들은 ‘아랍의 봄’은 ‘아랍의 겨울’, ‘이슬람의 봄’, ‘기독교의 겨울’과 같은 부정적 시각이 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인의 생각을 들으면서 ‘아랍의 봄’은 분명 이전의 것과는 조금은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국내외 이슈들을 다루는 디지털 잡지인 *Muftah.org*를 창간한 마리암 잠쉬디(Maryam Jamshidi) 박사는 ‘아랍의 봄’으로부터 등장했거나 영향을 받아온 새로운 집단, 조직들, 벤처들, 그리고 프로젝트들의 등장에서 나타난 시민적 창업정신(Civic Entrepreneurship)이 이러한 현실들의 밑바탕이며, 풀뿌리 수준에서 지역사회를 변혁하는 협력과 집합적 행동과 같은 새로운 가치들을 구현한다고 주장한다.¹³ 시민적 창업정신(Civic Entrepreneurship)은 마리암 잠쉬디(Maryam Jamshidi) 박사의 책 전체에서 보면 시민의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한국적으로 상황화를 해보자면, 1987년 체제 이후 강압적인 권위주의 통제 권력의 상대적 약화로 ‘한국의 봄’은 분명 시작되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의미는 풀뿌리 수준에서 시민사회 운동이 가능한 입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시

13 Maryam Jamshidi, *The Future of the Arab Spring: Civic Entrepreneurship in Politics, Art, and Technology Startups* (Elsevier: Oxford, 2014), 26.

민사회의 감시 기능과 다양한 형태의 대안사회 운동이 실험되고 발전하는 ‘한국의 봄’이 온 것처럼 ‘아랍의 봄’ 또한 중동의 시민사회 운동으로 변혁의 파도를 펼쳐갈 수 있진 않을까? 1990년 소련의 해체 이후에 거대 담론을 버리고 미시적 권력의 해체를 통한 자생적인 변혁의 길이 모색된 것처럼 중동에서도 창조적이고 대안적인 시대를 펼쳐갈 새로운 세대가 탄생한 것은 아닐까? 2017년 현재 한국의 촛불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존엄 투쟁이 2011년 ‘아랍의 봄’에서 이미 선행된 것은 아닐까? 중동 지역을 세계체제의 주변부로 보는 편견 때문에 중심부의 시각에서 ‘아랍의 봄’ 사건을 폄하하고 있지는 않을까?

2011년은 미국의 월가에서도 존엄을 촉구하는 시위가 거대한 파도를 형성한 해이다. 지구촌의 경제 수도와 같은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미국 시민들은 “월가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 OWS)”를 외쳤다. ‘미국의 가을’이라고도 부르는 이 운동은 미국 사회의 경제 불안과 부조리에 항의하는 ‘고학력 저임금 세대’ 30명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들은 미국을 경제위기로 빠뜨린 장본인들인 수백만 달러의 퇴직금을 챙겨 떠나는 월가의 최고경영자들에게 분노했다. 2011년 10월 1일에 시위대는 “우리는 미국의 최고 부자 1%에 저항하는 99% 미국인의 입장을 대변한다”,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富)의 50%를 장악하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방값 걱정,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해 달라” 등의 구호가 외쳐졌다. 그리고 이 시위는 워싱턴 D.C, 보스턴,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시애틀 등 100여개 도시로 확산되었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와 캐나다, 브라질 등 시간대 상으로 가장 늦게 시작한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시위가 계속되었다.

세계화의 거대한 국면 하에서 지구촌의 시민이 겪는 박탈감은 미국이나 한국이라 중동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며, 그런 불만이 창의적이고, 문화적이며, 대안적인 새로운 삶의 운동과 사회변혁으로 펼쳐지는 것은 지역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튀니지의 부아지지도 굴욕(humiliation)에 맞서 존엄(dignity)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것이 혁명으로 확산된 것은 중동의 지역 경찰들에게도 존엄의 요구가 공통적이었기 때문이다. 마리아م 잠쉬디¹⁴는 존엄에 대한 요구는 특별한 주의(dogmas)와 정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고의 변화, 즉 더 이상의 비하와 모욕을 거절하겠다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존엄한 대우를 요구하는 운동이었기에 탈정치화된 대중을 광장으로 나오게 했고, 더 이상 정부의 축사에 살아가는 양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주장한다. 마리아م 잠쉬디(Maryam Jamshidi) 박사가 소개하는 ‘아랍의 봄’의 광장에 등장한 슬로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그들은 고무총으로 우릴 쏘았지만 우린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다”, “나는 과거에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이집트이다”, “나를 수치스럽게 살도록 내버려두기 보다 나는 타히르 광장에서 차라리 죽겠다”, “이집트는 모든 이집트인들의 것이다,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이상 이집트에서), “어떤 정당들이나 게릴라 정치세력이 아니라 우리의 혁명은 청년혁명이다”, “우리의 혁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혁명이다”(이상 예멘), “리비아, 리비아, 너의 목소리를 높이라. 지금은 우리의 시간이다. 우리의 선택이다. 함께 우

14 Ibid.,

15 Ibid., 29.

리 일어나자, 카다피가 우리 땅을 떠날 때까지!”(이상 리비아)

마리암 잠쉬디(Maryam Jamshidi) 박사의 관점을 더 따라가다 보면 메가 담론의 해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중동 지역을 지배해온 메가 담론이라면 크게, 〈이슬람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종파주의〉이다.¹⁶ 세속주의는 이슬람을 정치에서 배제하고 종교적 차원으로 한정 시키고, 사회와 경제 및 정치와 문화와 같은 공적 영역은 탈종교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라크의 경우 수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아랍인과 쿠르드인과 같은 종파 간 민족간 긴장이 내재한 곳인데, 사담 후세인의 사회주의 지향 바트당 통치 체제에서는 국가 통합을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었다. 사회주의는 사고의 프레임이 자본과 노동이기 때문에, 수니파와 시아파, 아랍인, 쿠르드인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통합력을 가질 수 있었다.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다음에 이라크가 급격히 종파와 민족의 대립으로 분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런데 ‘아랍의 봄’을 움직이는 광장의 민심이 말하는 변혁의 요구는 〈이슬람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종파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세속주의〉, 〈이슬람주의〉, 〈종파주의〉를 토대로 한 지배권력은 하나같이 중동의 풀뿌리 민초들에게 존엄의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세속주의자건 이슬람주의자건 일단 대중 선동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부패와 인권탄압,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한국의 촛불 광장의 민심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거대 담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열망과 요구를 담고 있다. 구시대의 관점에서 여전히 이러한 양극단의 틀로 광장을

16 Ibid., 30.

편하하는 일부 세력도 있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선동에 가까운 것이다. 촛불의 민심은 삶의 존엄을 요구하고 있다. 중동 세계에도 성향에 따라, 이슬람도 세속화된 변혁적 형태 아니면 보수적인 경건주의 등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미국의 가을’에 표출된 것처럼, <최고 부자 1%에 저항하는 99%>가 중동 현실이라면 저항과 대안 창출의 움직임은 이미 실망하고 이미 거부의 대상이 된 거대 이데올로기가 되살아 날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예멘과 리비아는 아직 종파 이데올로기가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다른 중동 국가들의 풀뿌리 수준에서는 기존의 사고와 이데올로기로 환원시킬 수 없는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모색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IV. ‘아랍의 봄’ 이후의 기독교 선교

1. ‘아랍의 봄’ vs. ‘기독교의 겨울’ ?

‘아랍의 봄’과 관련된 기독교 세계의 견해로는 랄프 스타이스(Ralph Stice)가 쓴, 『아랍의 봄, 크리스탄의 겨울』 *Arab Spring, Christian Winter: Islam Unleashed on the Church and the World*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이미 도식화된 종말론에 근거하여 ‘아랍의 봄’이 이슬람의 부흥과 기독교의 박해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을 주로 하고 있다. IS의 발흥으로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콥틱 교회당에 대한 테러나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www.kci.go.kr

공격을 단순히 이슬람의 발흥이라는 단일 변수로 환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테러는 종교적 원인과 무관하지 않지만 정치적 이유가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슬람 지하드를 통해서 테러는 일방적으로 이교도를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와 전쟁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치적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는 차츰 드러나듯이 테러가 정치적 음모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마이클 린드(Michael Lind)가 쓴 『보수주의로부터의 상승』 *Up from Conservatism*에는 버본 전략(Bourbon strategy)이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다. 미국의 남부의 백인 상층부 사람들은 넘쳐나는 흑인들 때문에 미국이 힘들다는 메시지를 구사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¹⁷ 미국 남부의 백인들을 프랑스식으로 부르봉이라고 지칭하는데, 백인 사회의 계층적 빈부 격차로 인해 초래하는 대중의 불만을 더 약자인 흑인에 대한 혐오로 유도함으로써 백인 상층부의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의 난민 혐오 그리고 인종주의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보통 설명이 될 수 있다. 경제가 악화된 것은 지배층이 경제 운영을 잘못된 책임이며, 너무 많은 분량의 파이를 독점하기 때문인데 지배층은 대중 속의 약자 집단을 분리해내고, 모든 혐의를 그들에게 전가하는 대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삶이 풍요롭지 않을 때 지배권력은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기득권을 보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콥틱 기독교에 대한 테러가 있다면 그것은 이슬람주의 진영에서 자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세속주의 권위주의 정치권력이 꾸민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랄프 스타이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도식화된 종말론

17 Michael Lind, *Up from Conservatism: Why the Right is Wrong for America* (Free Press: New York, 1996), 206.

에 기초하여 현상을 끼워 맞추는 담론들에 대해서는 비평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아랍의 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교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이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기독교 선교의 봄

먼저 튀니지에서 10년 이상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의 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랍의 봄’이 선교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그 선교사는 혁명 이후, 관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튀니지 경제에서 관광객 수가 예년에 비해 50% 정도 줄어들었고, 지역 간 경제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몇 개 월내에 군소 정당들이 80여개나 생겨나 경제적,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고, 이후 혁명 전에는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 IS 가담 등 튀니지 사회는 급변하고, 요동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보고는 앞에서 분석한 ‘아랍의 봄’ 이후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정권의 변화가 일어났고 시도되고 있지만 경제 층위에서의 모순은 변한 것이 없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튀니지의 경우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 동안 언론, 인터넷 검열 등이 폐지되었고, 시민들은 예전에 없었던 자유가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세속주의 권위주의 정부가 이슬람의 확산을 차단하고 반정부 세력의 성장을 억압하기 위해 구축한 감시와 검열의 족쇄가 풀리거나 느슨하고 ‘예전에 없었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중동의 봄’은 시민혁명이었고, 보잘것없던 미미한 민초들이 용기를 갖고 광장으로 나와 연대했을 때 괴물같은 독재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

이제는 가슴에 있는 말을 자유롭게 밖으로 꺼낼 수 있고, 수동적으로 세뇌된 가치와 사상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이다.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이런 자유는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튀니지에서는 ‘No God, No Master’라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반대하는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이에 불만은 품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극장을 습격하여 외부 유리를 파손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으로 튀니지 시민 약 3천여 명이 이슬람 원리주의와 폭력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자유 튀니지, 자유 종교’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튀니지 선교사는 증언했다. 튀니지의 경우 본래부터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곳이었고 ‘아랍의 봄’ 이후로 잠시 이슬람주의 정당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광장의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슬람의 한계를 금방 알아챈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랍의 봄’ 이후, 튀니지에는 복음에 반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튀니지 선교사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튀니지에서 기독교 위성방송을 하는 한 외국단체는 매년 700여 명의 튀니지 사람들이 방송을 복음에 반응하여 연락을 한다고 한다. 혁명 이후에는 그 수가 수 만 명으로 늘어났고, 꿈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 지역마다 여러 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

그리고 튀니지 혁명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튀니지의 세속화, 탈이슬람화이다. 2014년 개정된 헌법 6조에는 종교, 개종의 자유, 개종자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1997년 10여 명의 기독교인에 불과하던 튀니지가 1999년 30여 명, 2000년 300여 명, 2010년 400여 명, 자스민 혁명

이후 2013년 약 1000명 그리고 2015년 튀니지 한 온라인 매체에서 튀니지 기독교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회심한 기독교인들의 간증이 실리고, 튀니지 기독교인 통계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약 5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모두 MBB(Muslim Background Believers, 무슬림 배경에서 새롭게 개종한 기독교인)라고 한다.

이집트의 경우도 튀니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집트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무바라크 대통령 시절에는 독재정권이어서 정보부의 감시가 심하였다고 한다. 그때는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선교 관련 내용을 하면 바로 잡혀갔다. 그러나 2011년 아랍의 봄부터는, 정보부 입장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을 감시하기에도 여력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정보 기관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었다. 지금의 정권도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감시하느라고 정보부들이 바쁘기 때문에 교회 내 일에 대해서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인터뷰에 응한 이집트 선교사는 증언한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등장한 시시 정부도 정적인 불법화된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감시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감시를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기독교인들도 이미 다 알고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집트의 현지교회의 한 청년 리더와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아랍의 봄 이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념들과 신념들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즉, 그 동안의 폐쇄적인 기독교 사회가 이제는 글로벌 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른 문화나 다른 세속적 친구들에게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다른 국가들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문

을 두드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고정 관념, 신념 체계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친구들과 나아가 다른 나라들에까지 확대되는 선교를 도모하게 되었다고 그 이집트 교회 청년은 증언한다.

그리고 요르단 선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아랍의 봄’이 중동 선교에 미친 영향을 동일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요르단의 경우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통해서 자유롭게 종교적 이슈들을 토론할 수 있게 되었고, IS와 같은 테러조직에 대한 전쟁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정부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IS가 쿠란과 하디스의 경전 구절을 갖고 지하드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가까이 접하면서 ‘이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스크에서 수동적으로 이맘의 설교를 듣고 무슬림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IS가 주장하는 쿠란 구절을 직접 찾아 그 실체를 알게 되면 너무 놀란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르단의 경우도 ‘아랍의 봄’ 이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요르단 사람들이 MBB가 되고 있다.

V. 결론

‘아랍의 봄’은 비록 서구중심주의적 편견이 농후한 시선이 드리워진 비유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전개된 중동의 정치적 복잡하고 비극적인 격변 속에서 ‘프레카리아트 (precariat)’가 새로운 저항 운동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전통적인 〈세속주의〉, 〈이슬람주의〉, 〈종파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들이 아직도 작동하고, 정치와 사회의 현장 속에서 유명처럼 출몰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고, 정적들을 공격하거나 대중을 조종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버본 전략)로 사용되고 있지만,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특히 신자유주의의 괴물 앞에 인간의 존엄(*karama, dignity*)을 요구하는 풀뿌리 ‘프레카리아트(*precarariat*)’의 정당하고 용감한 목소리는 중동의 광장만이 아니라, 뉴욕의 월가,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도 동일하게 파도치고 있다. 튀니지와 같이 서구적 기준에 보다 가까운 변화에서부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 터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 그리고 시리아, 리비아, 예멘과 같이 실패국가(*failed state*) 지경에 처한 국가들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지금 현실에서는 이데올로기에 복종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과 판단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대안적인 삶의 존재방식을 모색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 선교 또한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보다 자유로운 사역환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프레카리아트(*precarariat*)’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정체성과 가치, 존엄에 대한 토론이 확산되면서 기독교적 가치와 복음에 기초한 대안적 삶을 도전하기에 보다 열린 공간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선교의 관건은 선교가 복음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현존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질서에 불안정화된 사람들의 마음

www.kci.go.kr

에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이다. 로마 제국의 상업적 금융적 환경에서 초대교회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혼합주의의 길을 걷지 않고 마음의 가난과 십자가와 사랑의 대안적 질서를 구축해갔듯이, 아랍의 봄이라는 조금은 더 열린 환경에서 복음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폭풍을 초월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웅진, 박찬욱, 신윤환 편역. 『비교정치론 강의 2: 제3세계의 정치 변동과 정치경제』. 한울아카데미:서울, 1997.
- Antoun, Naira. “Threads of Narrating the Arab Spring,” Last modified March 25, 2012, <http://www.jadaliyya.com/pages/index/4820/threads-of-narrating-the-arab-spring> (Accessed on 2017, 13th Jan.).
- Bagherpour, Amir. “Religion and the evolution of democracy.” A revised Selectorate Model for the Arab Spring. Ph.d.1 *diss.*,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12.
- Bauman, Zygmunt, Donskis, Leonidas. *Moral blindness: the loss of sensitivity in liquid modernity*. Polity Press:Malden, 2013.
- Beinin, Joel. “Egypt at the Tipping Point?.” *Foreign Policy*. Last modified January 31, 2011, <http://mideast.foreignpolicy.com/posts/2011/01/31/egypt-at-the-tipping-point> (Accessed on 2017, 13th Jan.).
- Gelvin, James. Conclusion: The Arab World at the Intersection of the National and Transnational.” In Mark L. Haas Jamshidi, Maryam, *The Future of the Arab Spring: Civic Entrepreneurship in Politics, Art, and Technology Startups*. Butterworth-Heinemann:London, 2014.
- Inglehart, Ronald, Welzel, Christian,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New York, 2005.

- Jamshidi, Maryam. *The Future of the Arab Spring: Civic Entrepreneurship in Politics, Art, and Technology Startups*. Elsevier: Oxford, 2014.
- Lind, Michael. *Up from Conservatism: Why the Right is Wrong for America*. Free Press: New York, 1996.
- Lynch, Marc. "Obama's Arab Spring?" *Foreign Policy*. Last modified January 6, 2011 <http://foreignpolicy.com/2011/01/06/obamas-arab-spring/2011>. (Accessed on 2017, 13th Jan.).
- O'Donnell, Guillermo A.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Studies in South American Poli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73.
- Prashad, Vijay. *Arab Spring, Libyan Winter*. AK Press :Oakland, 2012.
- Standing, Guy. *Work after globalization: Building occupational citizenship*. Edward Elgar: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USA, 2009.
- _____.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Academic: London, 2011.
- Stice, Ralph. *Arab Spring, Christian Winter: Islam Unleashed on the Church and the World*. Aneco Press: Abbotsford, 2015.
- Zeleny, Jeff. Cowell, Alan. Addressing Muslims, Obama Pushes Mideast Peace. *The New York*. Last modified July 10, 2009, <http://www.nytimes.com/2009/06/04/us/politics/04obama.text.html> (Accessed on 2017, 13th Jan.).

■ ABSTRACT

Christian Missions after Arab Spring

Dong Chan Seo

The ‘Arab Spring’ is a metaphor for Arab uprisings containing some Western–Centric prejudices. It began in 2010 in Tunisia and quickly spread to Algeria, Jordan, Egypt, Yemen, and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In this paper, the ‘Arab Spring’ metaphor is viewed not just as a desire for a western style democracy but as the legitimate and courageous voices of ordinary people demanding human rights and dignity against the neo–liberal monsters of the global capitalistic system. When Islamists had taken control over various regions during the chaotic unfolding of the ‘Arab Spring’, the Arabs experienced first–hand their own incompetence to solve accumulated socio–economic–political problems. Furthermore, Islamists brought back a theocracy of Islam, forcefully subjugating people to conform to *Sharia*. The cruel acts of the Islamic State in the name of Sharia awakened the people to know the true identity of Islam. These negative experiences incited people to question

www.kci.go.kr

their traditional value system, triggered a shift of paradigm and values beyond political spheres, thereby creating freedom to discuss faith and to reflect more openly than before on their values as well as about their future. This change brought about a new positive phase of Christian missions in the Middle East.

Keywords: ‘Arab Spring’ metaphor, Growth of a civil society, Freedom, Revival of Christian Missions